

3단계 개방 앞둔 영미 로펌 한국시장

26개 로펌 각축...명암 엇갈려

소송, IP, 해상 전문 로펌도 서울 진출

얼마 전부터 한국의 법률시장을 얘기하면서 영미 로펌들을 빼놓을 수 없게 되었다. 2012년 시장이 개방된 후 서울에 진출한 영미 로펌은 모두 26곳. 여기에 지난 회계연도에 세계 최대 매출을 올린 Latham & Watkins도 서울에 사무소를 연다고 하는 등 한국이 영미 로펌들이 눈독을 들이는 뜨거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외국 로펌의 한 관계자는 “사회사까지 포함하면 한국계 기업 수천개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영미 로펌들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상대로 투자와 분쟁해결 등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려고 한다”고 고무적으로 얘기했다. 여기에다 유럽 로펌은 내년 7월 1일부터, 미국 로펌은 2017년 3월부터 한국 로펌과의 합작 및 합작법인의 한국법 자문이 가능하게 돼 영미 로펌의 한국시장에서의 활동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3단계 개방 시작

아직 시장개방 초기단계라고 하지만, 한국에 진출한 영미 로펌 중엔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사건을 수입하며 성공적으로 활동하는 곳이 적지 않다. 가장 먼저 서울에 사무소를 열어 ‘얼리 버드(early bird)’ 로펌으로 불리는 셰퍼드멀린(Sheppard Mullin)과 롱스앤그레이(Ropes &

Gray)가 대표적으로, 미국 본토에서 한국 업무를 수행하다가 태평양을 건너온 두 로펌은 특히 업무영역과 자문 대상 업종을 늘려가며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

또 홍콩사무소 시절부터 한국 업무를 활발하게 수행해 온 전통의 클리어리 고틀립(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과 심슨 대처(Simpson Thacher & Bartlett) 등이 M&A와 자본시장 등의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최근엔 증가일로에 있는 한국 기업의 해외 소송, 해외분쟁을 겨냥한 소송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M&A 거래에 많이 참여하던 폴 헤이스팅스(Paul Hastings)가 시장개방 이전부터 이미 송무 쪽으로

영역을 넓혀 성공한 대표적인 로펌으로 분류되며, 폴 헤이스팅스는 지난 10월 초 미 연방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을 서울로 불러 미국 소송 대응방안에 관한 포럼을 열기도 했다.

코브레안김도 한국 진출

지난 11월 4일 서울 광화문의 포시즌 호텔에선 글로벌 네트워크가 발전한 것으로 유명한 화이트앤케이스(White & Case)가 서울사무소 개설을 기념하는 오프닝 리셉션을 열어 로펌과 기업체 변호사들 사이에 뉴

사내변호사 선정 인기 Top 10

Allen & Overy
Baker & McKenzie
Cleary Gottlieb
Clifford Chance
Dechert
DLA Piper
O'Melveny & Myers
Paul Hastings
Quinn Emanuel
Ropes & Gray
Sheppard Mullin
Simpson Thacher
Skadden Arps
White & Case



영미 로펌들이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열어 기업체 관계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는 가운데 디엘에이 파이퍼가 지난 10월 21일 아프리카 투자 및 진출에 관한 세미나를 열어 주목을 받았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커버하는 세미나는 이번이 처음으로, 디엘에이 파이퍼 협력로펌에 근무하는 아프리카 현지 파트너급 변호사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발표와 함께 토론에 참석했다.

스가 됐다. 소송 전문인 제임스 리가 서울사무소 대표를 맡은 화이트앤케이스는 국제중재, PE, M&A 자문과 함께 특히 한국 기업의 미국 소송 대응을 중점 분야로 내세우고 있다.

화이트앤케이스 오프닝 리셉션

또 지난 8월 13일 화이트앤케이스와 함께 서울사무소 설립인가를 받은 코브레안김(Kobre & Kim)은 국제 채권회수 등 강제집행서비스와 함께 소송에 특화된 소송 전문 로펌으로, 소송 전문 로펌도 한국 기업의 소송수요를 겨냥,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서울엔 또 IP 전문의 피네간 헨더슨(Finnegan, Henderson)과 해상 전문의 영국 로펌인 스티븐슨 하우드(Stephenson Harwood)도 사무소를 내고 진출했다.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김영준 미국변호사가 서울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밀뱅크(Milbank Tweed, Hadley &

“ IP 전문 피네간, PF 특화 밀뱅크
자원개발 HSF, 소송 전문 코브레
영미 로펌 경쟁 춘추전국시대 방불 ”

McCloy)는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특화된다는 전략이며, 호주 로펌과 영국 로펌이 합병해 탄생한 허버트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는 건설과 에너지, 자원 개발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척하고 있다.

요컨대 영미 로펌들이 시장개방 이전 홍콩을 중심으로 주로 M&A와 한국 기업의 해외증권, 채권 발행에 자문하며 한국 업무를 발전시켜 왔다면 시장개방과 함께 해외소송과 국제중재, IP, 공정거래, 자원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며 모두 26개 로펌이 서울에 진출한, 일종의 춘추전국시대가 전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

“ 3단계 시장개방엔 아직 관망 분위기 롭스앤그레이 등 합작 안 한다 선언 ”

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영미 로펌들 사이에선 치열한 경쟁과 함께 일종의 업무분야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 분야별

중엔 다른 업무분야로 중점 분야를 옮기는 로펌도 없지 않다”고 영미 로펌들 사이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 아직은 변호사 한두 명이 서울에 나와 일종의 연락사무소 형

로 리그테이블에 올리는 로펌 숫자가 줄어들고, 힘에 부치는 로펌이 떨어져 나가는 일종의 제로섬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자본시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미국 로펌의 한 관계자는 “분야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에서 밀리는 로펌 중엔 다른 업무분야로 중점 분야를 옮기는 로펌도 없지 않다”고 영미 로펌들 사이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 아직은 변호사 한두 명이 서울에 나와 일종의 연락사무소 형태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곳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만큼 영미 로펌들이 다양한 규모와 전략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시장개방 4년차의 모습이다.

아웃바운드 M&A 등 경쟁 치열

문제는 한국시장을 놓고 벌이는 영미 로펌들 사이의 이러한 경쟁이 한국 로펌의 시장을 잠식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사실상 진입장벽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국제중재와 아웃바운드 M&A 거래가 대표적인 분야로, 한국 로펌들은 이들 시장에서 외국 로펌들과의 직접적인 경쟁에 부딪치고 있다.

하나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은 내년으로 다가온 3단계 시장개방. 유럽 로펌을 시작으로 한국 로펌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한국법 자문까지 나설 경우 한-외 로펌간 전면적인 경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영미 로펌들은 일단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 롱스앤그레이와 스티븐슨 하우드는 3단계 개방이 시작되더라도 한국 로펌을 합병 또는 합작하거나 한국변호사를 채용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하게 밝히기도 했다. 클리어리와 쉐퍼드멀린도 한국 로펌과의 합작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

타내고 있어 3단계 개방이 본격화되더라도 한외 합작법인 추진이 금방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에서 거론한 로펌들은 현재의 개방 단계에서 이미 활발하게 한국 업무를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로펌들로, 매력적인 3단계 개방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한 특별히 상황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

예상보다 많은 영미 로펌이 한국에 진출하며 과열경쟁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 실패해 철수해야 한다든가 하는 얘기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서울에 사무소를 열어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로펌이 적지 않은데다 지금은 서울사무소의 기틀을 닦고 열심히 시장을 개척하는 초기 투자단계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국 진출 로펌들 인기

리걸타임즈가 지난해에 이어 기업체 변호사들을 상대로 외국 로펌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자문이나 소송 등 사건을 맡겨야 할 경우 가장 업무를 맡기고 싶은 외국 로펌’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공동순위를 포함 Allen & Overy, Baker & McKenzie, Cleary Gottlieb, Clifford Chance, Dechert, DLA Piper, O’Melveny & Myers, Paul Hastings, Quinn Emanuel, Ropes & Gray, Sheppard Mullin, Simpson Thacher, Skadden Arps, White & Case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중 Dechert와 Quinn Emanuel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사무소를 열어 변호사가 상주하는 로펌들로, 서울사무소 개설이 로펌 선택 등에 가점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내변호사는 모두 111명이다. ■

김진원 기자

찾아지는 외국변호사들 로펌 이동 서울사무소 개설 로펌들 인기 높아

서울에 진출한 영미 로펌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계 외국변호사들의 로펌 이동이 갈수록 찾아지고 있다. 로펌 입장에선 업무분야를 새로 늘리거나 인력 보강을 위해 적극 영입에 나서고 있고, 변호사들도 보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로펌을 찾아 이력서를 내밀고 있다.

같은 건물서 층만 옮겨 근무

가장 최근의 변호사 이동은 Arnold & Porter에 근무하던 김용상 미국변호사의 오멜버니앤마이어드스 합류. 또 지난 7월 쉐퍼드멀린에 합류한, M&A, 자본시장 업무에 밝은 박중서 미국변호사는 심슨 대처 서울사무소에 있다가 쉐퍼드멀린이 업무영역을 확장하며 영입한 케이스로, 심슨 대처와 쉐퍼드멀린 서울사무소가 서울 을지로의 같은 건물에 있어 사무실 기준으로 따지면 층만 옮긴 결과가 됐다. 이에 앞서 링크레이터스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던 김경석 미국변호사가 화이트앤케이싱 홍콩사무소로 옮겼다가 얼마 전 화이트앤케이싱이 서울사무소를 개설하며 다시 서울로 돌아왔으며, 롱스앤그레이는 2013년 11월 클리어리에서 근무하던 M&A 전문의 이재우 미국변호사가 합류한 데 이어 1년 후인 지난해 11월엔 링크레이터스 서울사무소에서 활약하던 강효영 영국변호사를 영입했다.

폴 헤이스팅스에서 자본시장 및 M&A 거래에서 자문하는 김동철 변호사도 클리어리에 있다가 폴 헤이스팅스로 옮겨 파트너가 된 경우. 반대로 폴 헤이스팅스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강원석 영국변호사는 프레쉬필즈 홍콩사무소로 옮겨 한국팀장을 맡고 있다.

강 변호사의 전임자인 프레쉬필즈의 장익성 미국변호사는 McDermott Will & Emery의 파트너가 되어 서울사무소에서 활약하고 있다. 홍콩에서 활약하던 이동호 미국변호사는 지난해 허버트스미스프리카일즈 서울사무소에 합류했다.



김용상 변호사

이재우 변호사



김경석 변호사

박중서 변호사

사건 늘며 변호사 늘리는 쉐퍼드멀린 본사 지원과 협업으로 성장 견인

“한국에서의 업무를 발전시키려는 회장님 등 최고 경영진의 의지와 전폭적인 지원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서울사무소 개설 3년. 가장 성공적으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곳 중 하나인 쉐퍼드멀린의 김병수 한국대표는 한국시장에서의 성과를 미국 본사의 공으로 돌렸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도와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본사의 각별한 관심과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서울사무소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쉐퍼드멀린 서울사무소는 베이징, 상하이 사무소와 함께 아시아에 두고 있는 세계의 사무소 중 하나로, 쉐퍼드멀린은 홍콩과 도쿄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다.

파트너만 4명 상주

그러나 쉐퍼드멀린의 한국에서의 발전을 얘기하면서 서울에 상주하는 김병수 대표 이하 서울사무소 식구들의 노력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김 대표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미국변호사가 된 주인공으로, 특유의 친화력과 부지런함으로 한국의 클라이언트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전문 분야는 금융과 파산업무. 또 공정거래 전문의 문유경 변호사와 지난 가을 합류한 M&A와 사모펀드, 자본시장 전문의 박중서 변호사, 기업자문 및 증권팀 파트너로 서울과 두바이를 오가며 자문하는 김환 변호사,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기술 쪽에 밝은 제니퍼 리 등이 포진해 높은 시너지를 추구하고 있다. 파트너만 4명. 파트너 수만 따지면 가장 큰 규모의 서울사무소 중 한 곳이다.

여기에 최근 유럽 공정거래팀을 발족한 브뤼셀 사무소를 포함해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여러 사무소에서 활약하는 변호사만 700명에 이르는,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협업이 의뢰인들의 높은 만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 틀린 말이 아니다.

최근 유럽 공정거래팀 발족

김병수 대표는 “브뤼셀의 유럽 공정거래팀에서 한국 기업들이 유럽시장 진출에서 부닥칠 수 있는 경쟁법 이슈를 더욱 효과적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쉐퍼드멀린은 이런 경쟁력을 앞세워 올 초 하나은행을 대리한 상표다툼에서 미 연방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내고, 코트라를 상대로 뉴욕지방법원에 제기된 부당해고소송도 코트라를 대리해 외국주권면책특권법을 원용,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 motion 단계에서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받아냈다. 또 현대자동차를 대리해 비활동단체(NPE)인 NovelPoint Tracking이 GPS 기술 관련 특허 위반 혐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차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 종결하고, 만도기업과 미국 경쟁사 간 자동차 부품 관련 특허분쟁에서도 만도 측을 대리해 합의로 원만하게 마무리했다.



김병수 미국변호사

신라젠 대리해 Jennerex 인수

한국의 생명공학 기업인 신라젠을 대리해 미국의 생명공학 기업인 Jennerex를 인수하고 Jennerex의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수행한 것도 쉐퍼드멀린의 한국팀. 쉐퍼드멀린은 또 한국의 애니메이션 기업인 High 1 Entertainment를 대리하여, Nick Jr.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상영하고 있는 ‘Zach and Quack’이라는 어린이용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국제 공동제작 및 유통 관련 법무도 담당했다.

한마디로 한국시장에서 소송과 M&A, IP, 공정거래, 자본시장 업무 등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는 곳이 쉐퍼드멀린으로, 김병수 대표는 이 역시 미국의 LA, 뉴욕, 워싱턴 사무소 등을 주축으로 한 쉐퍼드멀린의 다양한 경쟁력에서 배경을 찾았다. 쉐퍼드멀린의 클라이언트 명단엔 전자와 자동차는 물론 금융, 중공업, 생명공학, 식품, 제약, 엔터테인먼트 기업 등 이른바 잘 나가는 기업들이 업종별로 망라되어 있다.

삼성엔지니어링 ISD도 대리

쉐퍼드멀린은 삼성전자를 대리해 NPE가 제기한 독점금지 및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를 대변하고, 현대캐피탈을 대리해 자동차 할부금 채권을 기반으로 한 4억달러 규모의 자산담보부증권판매 거래에 자문하고 있다. 또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HDX가 미국의 제조업체를 상대로 미국중재협회(AAA)에 제기한 수억 달러의 중재사건에서 HDX를 대리해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한 데 이어 얼마 전 삼성엔지니어링을 대리해 정유공장 설립 계약과 관련, 오만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중재(ISD)를 제기, 국내외 로펌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2012년 여름 서울사무소를 개설한 쉐퍼드멀린은 가장 먼저 한국에 진출한 ‘얼리 버드’ 로펌 중 한 곳으로, 한국시장에 대한 이러한 열정이 3년여 시간이 흐르며 상당한 성공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 본토와의 컨퍼런스 콜을 위해 매일 아침 5시면 집을 나선다는 김병수 대표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 한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

소송, M&A 전문가 포진, 화이트앤케이 ICC 중재, 수십억\$ PF 수행

지난 8월 서울사무소 인가를 받은 화이트앤케이스는 상대적으로 뒤늦게 서울에 진출한 로펌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서울사무소 대표를 맡은 제임스 리는 “클라이언트 의견 등을 조사하며 신중하게 접근한 것”이라며 “사무소를 연 이상 서울에 오래 상주하며 한국에서의 업무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의욕을 나타냈다.

실제로 화이트앤케이스는 서울사무소 개설 이전부터 한국 기업 등을 상대로 활발하게 자문에 나서고 있다. 올해만 해도 오만의 대규모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거래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에 자문하고, 한국의 건설사를 대리해 시공상 하자과 공기 지연 등의 주장이 제기된 중동의 발전 및 담수플랜트 분쟁과 관련하여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ICC 중재를 수행 중에 있다. 또 서울사무소 개설 이후 벌써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연루된 소송 사건을 수임하고, 한국의 대기업 계열사를 위한 M&A 비딩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서울사무소 관계자가 설명했다.

한국 기업, 미국내 소송 사건 많아

화이트앤케이 서울사무소엔 소송 전문인 제임스 리 외에 M&A와 사모펀드 전문의 김경석 미국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국제중재 전문인 런던사무소의 Mark Goodrich와 M&A 거래를 주로 담당하는 앨버트 서 등이 서울사무소에 합류하기로 하고 법무부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



제임스 리 미국변호사